말소리와 음성과학 제1권 제2호 (2009)
pp. 151~162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Tensification Preference of Native Seoul Speakers of Korean

이 호 영[1)]
Lee, Ho-Young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tensification preference has changed over time and discuss how appropriately tensification preference is reflected in Principles of Standard Pronunciation and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For this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of tensification preference was conducted. 173 test words were used and 156 native Seoul speakers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results have shown that tensification preference has gradually increased from older to younger generations. In addition, Principles of Standard Pronunciation and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do not reflect real pronunciation appropriately. Therefore, some ways of incorporating the actual pronunciation of Seoul speakers in the Principles of Standard Pronunciation and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re suggested.

Keywords: Standard Korean, tensification, pronunciation preference, gender, generation

1. 서 론

표준발음법 제6장의 경음화 규정에 따르면 '밀**실**, 불**성**실'과 같은 한자어에서 /ㄹ/ 뒤에 나오는 /ㄷ, ㅅ, ㅈ/은 경음화 되며, '산**비**탈, 발**뒤**꿈치'와 같이 철자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이시옷이 내재되어 있는 합성어의 후행 형태소 두음 /ㅂ, ㄷ, ㄱ, ㅅ, ㅈ/도 경음화 된다. 또한 '갈**수**록'의 '-ㄹ수록'처럼 /ㄹ/로 시작하는 어미에서 /ㄹ/ 뒤에 나오는 /ㅂ, ㄱ, ㅅ, ㅈ/도 경음화 된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서울 토박이들이 '밀**실**, 불**성**실, 산**비**탈, 발**뒤**꿈치, 갈**수**록'을 경음화 시키지 않고 [밀**실**], [불**성**실], [산**비**탈], [발**뒤**꿈치], [갈**수**록]으로 발음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1)]

반면에 '새**소**리'는 선행 형태소가 유정물이어서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않으며, '눈**사**람'은 선행 형태소가 후행 형태소의 재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않는다[1]. 따라서 '새소리'와 '눈사람'은 각각 [새**소**리]와 [눈**사**람]으로[2)] 발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제법 많은 서울 토박이들이 [새**쏘**리], [눈**싸**람]으로 발음한다.

이와 같이 표준발음법에 규정된 경음화 규칙도 화자에 따라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효**과, 창**고**, 간**단**한' 등과 같이 화자에 따라 [**효**꽈, 창**꼬**, 간**딴**한]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효**과, 창**고**, 간**단**한]으로 발음되기도 하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별 단어들의 경음화 현상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경음화 현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음운 ·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같은 단어도 화자에 따라 경음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경음화 규칙들이 화자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고, 개별 단어들의 경음화가 화자에 따라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경음화 실현 양상을 조사한 연구로는 [2][3]이 있다. [2]는 19개 외래어의 경음화,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3]은 경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106개의 단어를 350명의 화자에게 발화시키고 녹음한 후, 고유어 합성어, 한자어 유성 자음 뒤, 한자어 모음 뒤,

1) 서울대학교 hylee@snu.ac.kr
(이 논문은 한국과학재단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지원번호: R01-2008-000-20651-0)).

접수일자: 2009년 5월 5일
수정일자: 2009년 6월 14일
게재결정: 2009년 6월 21일

2) '새'와 '눈'은 장모음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거의 구별되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모음의 장단을 무시하고 단어의 발음을 표기했다.

한자어 'ㄹ' 뒤 등으로 환경을 나누어 경음화 실현 빈도를 분석했다. 그러나 [3]에서는 어두 경음화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으며, 연령별, 성별로 경음화 실현 빈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173개 조사 항목을 가지고 156명의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령별, 성별로 경음화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어두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개별 한자음의 경음화, 개별 단어의 경음화 등으로 나눠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표준발음법은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발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 토박이들의 실제 발음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표준발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개별 단어들의 발음은 1999년에 발간된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전의 발음 또한 사전 편찬자의 직관에 의존해 규정되어 현실 발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음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발음법 제6장의 경음화 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별 단어 발음 규정이 현실 발음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논의하고, 장래에 있을 표준발음법과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음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2.1 조사 항목 선정

필자는 [1]에서 경음화 현상을 장애음 뒤의 경음화, 어간 종성 /ㄴ, ㅁ/ 뒤의 경음화, 관형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한자음에 의한 경음화, 젊은 세대와 방언의 경음화 등으로 분류해서 기술한 바 있다. 이 경음화 규칙들 중에서 '장애음 뒤의 경음화'는 서울말에서 한 단어 안에서, 혹은 하나의 말토막 안에서 예외 없이 실현된다고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어간 종성 /ㄴ, ㅁ/ 뒤의 경음화'와 "관형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도 거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제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기**다'와 '갈**수**록'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 화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몰**상**식, 밀**수**입' 등 22개의 복합어를[3]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사이시옷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음화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냥**개**비, 물**고**기' 등 35개의 복합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어두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족**집게, **세**다' 등 20개의 단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3) 이 논문에서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한다.

한자들 중에서 '법(**法**), 병(**病**), 자(**字**)' 등과 같이 어두에서는 첫 자음이 평음으로 발음되지만 어중에서는 종종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개별 한자음의 경음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범**법**, 성인**병**, 로마**자**' 등 37개의 단어를 조사 항목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규칙화하기는 어렵지만 화자에 따라 경음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개별 단어 59개도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거의 모든 조사 항목이 단일어나 복합어이지만 예외적으로 '다음 **달**', '다음 **세**상'과 같은 구, '갈**수**록'과 같은 용언 활용형도 포함시켰다.

표 1. 환경별 조사 항목 개수
Table 1. The classification of survey words

환경 \ 형태소 구성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합계
어두 경음화	15	2	3	20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20	0	15	35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0	22	0	22
개별 한자음의 경음화	0	32	5	37
개별 단어의 경음화	29	21	9	59
합계	64	77	32	173

2.2 설문지 작성

173개[4] 전체 조사 항목을 설문지에 무작위로 배열한 다음 각 항목마다 두 개의 보기를 제시하여 제보자가 가장 선호하는 발음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일부 조사 항목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음절이 두 개가 있어 네 개의 보기를 제시했다. 조사 항목과 보기는 모두 한글로 표기했으며, 의미의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조사 항목들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뜻을 적어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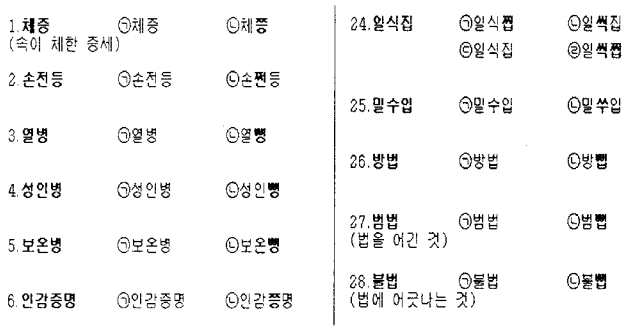

그림 1. 설문지 예시
Figure 1. A sample of the questionnaire

4) 설문지에는 181개의 조사 항목이 있었는데, 2개 항목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제외했고, 3개 항목은 어두경음화와 개별 단어의 경음화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통계 처리 과정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3개 항목은 통계 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2.3 제보자 선정

설문지 조사를 위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서울 토박이 156명을 제보자로 선정했다. 제보자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인원을 확보하면서도 성별로, 연령별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50~60대 제보자들 중 상당수는 서울 토박이회 회원들이었고, 20~30대 제보자의 거의 대부분은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이었다. 제보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2. 제보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Table 2. The distribution of informants

성별 / 연령	남	여	합계
20대	12	21	33
30대	19	13	32
40대	10	10	20
50대	10	13	23
60대	23	10	33
70대	7	8	15
합계	81	75	156

2.4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제보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제보자를 만나 직접 건네주기도 했다. 설문에 응한 제보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했다. 수거된 설문지는 제보자별, 항목별로 나눠 분석한 다음 항목별, 성별, 연령별로 분류했다.

1차 설문조사는 서울 토박이들의 발음 선호도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2003년 6월부터 2004년 2월에 걸쳐 한국어의 어간 말 종성 발음과 ㄴ첨가 단어들의 발음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되었다.[5] 이 때 153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연구보조원의 실수로 40대 제보자 20명의 설문지를 분실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에 걸쳐 제보자 42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수거된 설문지들을 토대로 개인별로, 항목별로 경음화 선호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사 항목에 대한 경음화 선호도가 100%인 제보자들도 있었고, 경음화 선호도가 0%인 제보자들도 있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경음화 선호도가 90% 이상이거나 10% 이하인 제보자들은 불성실하게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간주하고 경음화 선호도 집계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사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서 조사 항목에 대한 제보자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제보자에게 보기를 주고 자신의 발음을 고르라고 하면 자신의 발음을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신이 선호하는 발음을 고르라고 하면 소신껏 선호하는 발음을 고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발음을 더 정확하게 반영해서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발음 선호도 조사 자체도 제보자들이 좋아하는 발음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화자들의 발음을 녹음해서 분석하는 방법만큼이나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설문조사를 통한 발음 선호도 조사 방법은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John Wells 교수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John Wells 교수는 1988년에 처음 실시한 영국인의 영어 발음 선호도 조사 결과를 [6][7]에 발표했으며, 1998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영어 발음 선호도 조사 결과는 [8][9]에 발표했다. 그리고 [10]은 미국인의 영어 발음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사 결과는 [9]에 반영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조사 항목들 중 일부는 제보자들의 발음을 직접 녹음해서 분석한 [3]의 조사 항목과 겹치는데, 겹치는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설문조사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래에 있을 표준발음법과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음화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가 서울 토박이들에 대한 일종의 여론 조사의 성격을 띠므로 설문조사 방법이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 결과

3.1 전체적인 경음화 선호도

173개 조사 항목 전체에 대한 156명의 제보자 전체의 경음화 선호도는 평균 63.4%였다. 경음화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방법'과 '분홍색'으로 1%였으며, 가장 높은 항목은 '조건'으로 92%였다.

각 제보자들이 173개 전체 조사 항목 중 경음 발음을 선호한 조사 항목의 비율이 얼마였는지 개인별 경음화 선호율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성별·연령별 경음화 선호율을 구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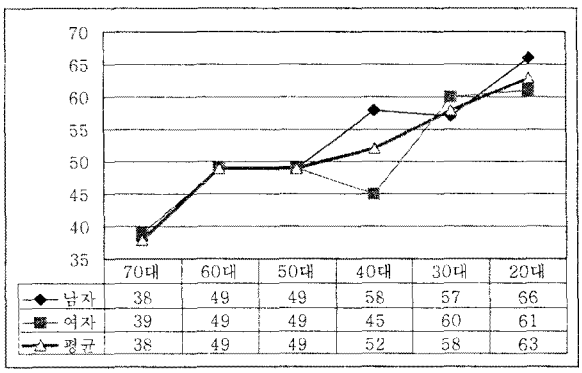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연령별 경음화 선호도 변화 추이(%)
Figure 2. The change of tensification preference(%)

5) 한국어의 어간 말 종성 발음에 대한 발음 선호도 조사 결과는 [4]에 발표되었고, ㄴ첨가 단어들의 발음에 대한 발음 선호도 조사 결과는 [5]에 발표되었다.

위의 <그림2>를 보면 젊은 세대로 올수록 경음화 선호율이 점차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버선발'과 '산들바람'의 경음화 비율에 대한 연령별 분석을 토대로 60대 이상과 나머지 집단의 발음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3]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경음화 선호율이 연령별로, 성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루스칼-윌리스의 순위 일원분산분석(Kruskal-Wallis 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령별 경음화 선호율은 유의도의 값이 0.000으로 $p<0.05$이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 경음화 선호율은 유의도의 값이 0.596으로 $p>0.05$이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 검정 통계량
Table 3. Test statistics

	연령별 선호율	성별 선호율
카이제곱	23.612	.281
자유도	5	1
근사 유의확률	.000	.596

연령별로 경음화 선호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4>의 연령별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20대가 103.95로 가장 높았고, 70대가 47.73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의 평균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했지만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연령별 평균 순위
Table 4. Mean rank by age

집단	사례 수	평균 순위
20대	33	103.95
30대	32	90.55
40대	20	71.33
50대	23	68.57
60대	33	66.62
70대	15	47.73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경음화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조사 항목들에서 이와 같은 경음화 선호도의 증가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그림3>의 '민물고기'와 '관세'는 연령별로 경음화 선호도의 뚜렷한 추세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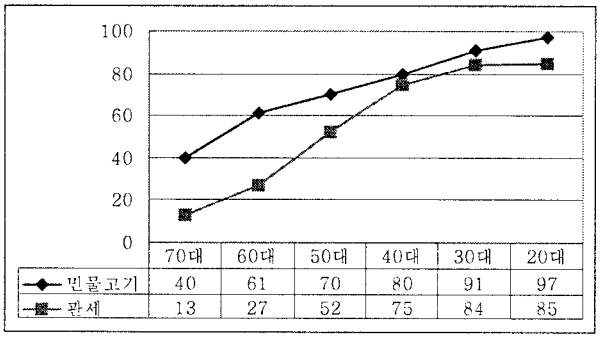

그림 3. 경음화 선호도의 추세적 증가(단위: %)
Figure 3. Increase in tensification preference(%)

이번 조사에서는 다음의 <그림4>에서 보듯이 연령별로 경음화 선호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조사 항목들도 일부 관찰되었다. '쌀겨'의 경우 젊은 세대의 제보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라서 철자대로 발음하는 제보자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간힘'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로 올수록 철자발음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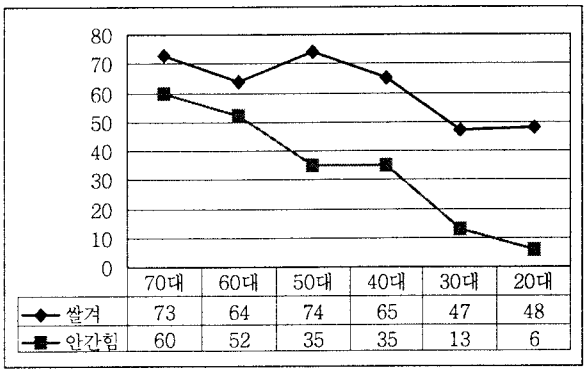

그림 4. 경음화 선호도의 추세적 감소(단위: %)
Figure 4. Decrease in tensification preference(%)

그리고 제법 많은 수의 조사항목들에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른 경음화 선호도의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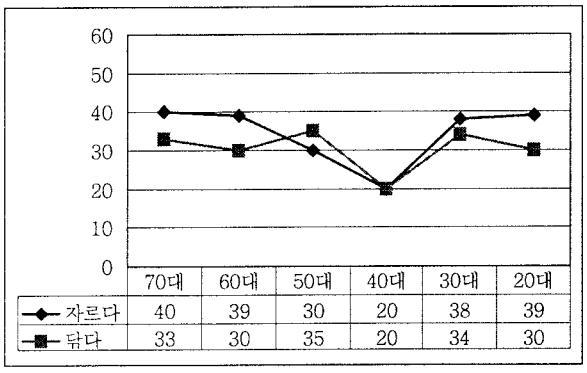

그림 5. 뚜렷한 변화 없는 경음화 선호도(단위: %)
Figure 5. No significant change in tensification preference(%)

3.2 어두 경음화

20개 조사 항목에 대한 156명 제보자의 평균 어두 경음화 선호도는 32%였으며, 경음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감다'와 '집다'로 5%였고, 경음화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힘이) 세다'로 75%였다. 각 조사 항목에 대한 경음화 선호도를 연령대별로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에서 맨 오른쪽 칸에는 연령대를 독립변수로 하고 선호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얻은 유의확률을 제시했다. 유의확률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고,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cell)이 전체 칸 수의 20% 이하라서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

게 차이 나는 항목에는 별표(*)를 붙였다.[6]

<표5>에서 보듯이 '(힘이) 세다, (국물이) 졸다, 세련되다, 소주' 등은 젊은 세대로 올수록 경음화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의미 있는 경음화 선호도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5. 어두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5. Preference of word-initial tensification(%)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세다	60	67	61	75	84	91	75	0.044*
족집게	67	64	61	60	66	88	69	0.183
달리다[7]	40	61	70	70	66	85	67	0.062
졸다	47	48	70	80	59	94	67	0.001*
세련되다	20	30	43	40	69	76	50	0.000*
소주	0	52	43	45	53	73	49	0.000*
곶감	40	48	39	40	28	36	38	0.708
자르다	40	39	30	20	38	39	35	0.702
생맥주	13	39	17	30	47	30	32	0.117
닦다	33	30	35	20	34	30	31	0.912
구기다	27	36	17	25	34	36	31	0.619
당기다	20	30	17	25	25	30	26	0.871
질기다	20	24	17	20	16	30	22	0.767
공짜	7	21	17	20	28	30	22	0.501
두드리다	13	24	13	10	9	12	14	0.578
좁다	0	9	13	10	9	21	12	0.367
동그라미	13	21	0	10	6	12	11	0.199
줄다	0	9	0	10	6	21	9	0.179
감다	0	0	9	10	6	6	5	0.505
집다	0	9	9	0	3	6	5	0.567
평균	23	33	29	31	34	42	32	

3.3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표준발음법 제28항에 의하면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형태소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경음화 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이시옷은 앞 형태소가 뒤 형태소에 대해 관형격 기능을 갖는 합성어들 중에서 앞 형태소가 '시간, 장소, 기원, 용도'를 나타낼 경우에만 첨가되며 '재료, 형상, 수단, 방법'을 나타낼 경우에는 첨가되지 않는다.[8] 예를 들어 '아침밥'에서 '아침'은 '밥'을 먹는 '시간'이며, '산새'에서 '산'은 '새'가 사는 '장소'이며, '솔방울'에서 '솔'은 '방울'의 '기원'이며, '장바구니'는 '장'이 '바구니'의 용도이므로 '아침밥, 산새, 솔방울, 장바구니'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며, 둘째 형태소의 첫소리가 경음화 된다.

다음의 <표6>은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고유어 합성어들에 대한 경음화 선호도를 연령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사 항목들 중 '쌀벌레'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둘째 형태소의 첫 자음이 경음화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음화 선호도 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성냥개비'의 경음화 선호도가 86%였으며, '발뒤꿈치'의 경우에는 '34%'에 불과했다. '쌀벌레'의 경우 구성 형태소들의 의미 관계상 사이시옷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둘째 형태소 첫 자음이 경음화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경음화 선호도도 3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에 의하면 '발뒤꿈치'의 경음화 비율은 29.43%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발뒤꿈치'의 경음화 선호도가 34%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숨소리, 민물고기, 웃음소리, 아침밥, 가을바람, 아침잠, 이슬방울, 밤손님'은 연령대에 따라 의미 있게 경음화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고유어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6. Tensification preference of native compound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성냥개비[깨]	73	88	78	85	88	94	86	0.414
잠버릇[빠][9]	80	85	87	80	84	91	85	0.891
물고기[꼬]	47	82	74	95	91	97	84	0.000
비탈길[낄]	53	76	74	90	97	94	83	0.001
거스름돈[똔]	60	61	70	90	97	97	81	0.000
솔방울[빵]	80	88	74	70	81	85	81	0.604
숨소리[쏘]	47	70	65	85	88	97	78	0.001*
민물고기[꼬]	40	61	70	80	91	97	76	0.000*
웃음소리[쏘]	53	67	61	85	75	94	74	0.013*
아침밥[빱]	67	52	57	85	81	82	71	0.017*
가을바람[빠]	47	61	43	75	75	91	68	0.002*
아침잠[짬]	27	58	65	65	81	79	66	0.004*
바늘구멍[꾸]	67	67	43	60	63	85	65	0.055
이슬방울[빵]	33	61	52	65	75	79	64	0.028*
집안사람[싸]	33	52	61	65	72	76	62	0.054
쌀겨[꺼]	73	64	74	65	47	48	60	0.190
눈시울[씨]	40	70	43	50	53	48	53	0.319
밤손님[쏜]	27	52	22	35	56	67	47	0.007*
쌀벌레[벌]	40	33	57	45	28	39	39	0.379
발뒤꿈치[뛰]	20	33	39	35	34	36	34	0.891
평균	50	64	60	70	73	79	66	

6) 카이제곱 검정 결과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난다고 판정된 조사 항목들 중에는 젊은 연령대로 올수록 선호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선호도가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것들도 있었고, 선호도의 추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7) (힘이) 달리다.

8) 사이시옷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1][12][13][14][15] 등 참조. [14][15]는 '시간, 장소, 기원, 용도'를 나타내는 관형격을 '속격'으로 지칭했다. 따라서 사이시옷은 앞 형태소가 뒤 형태소에 대해 속격의 기능을 갖는 합성어에 삽입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에 의하면 구성 형태소들이 동격 관계에 있는 합성어들 중 일부에도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9) 이 논문의 도표에서 대괄호 안에 적어 넣은 발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표준발음이다.

다음의 <표7>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복합어들에 대한 경음화 선호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은 '공기 밥'도 포함되어 있다. <표7>의 복합어들 중 '여름방학'과 '봄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둘째 형태소 첫 자음이 경음화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7>에서 경음화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조사 항목은 '상다리'로 선호도는 87%였으며, 선호도가 가장 낮은 조사 항목은 '산비탈'로 선호도가 19%에 불과했다. '산비탈'과 유사한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기슭'의 경음화 선호도가 65%인 것과 비교하면 '산비탈'의 낮은 경음화 선호도는 다소 의외의 결과였다.

'술상'과 '장바구니'의 경음화 선호도도 같은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손님상'과 '시장바구니'의 경음화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이시옷이 합성어의 사용 빈도와 음절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17]에 따르면 '장바구니'와 '시장바구니'의 빈도수는 각각 11:8과 6:1로 '장바구니'의 빈도수가 높으며, '술상'과 '손님상'의 빈도수는 각각 11:0과 28:0으로 '술상'의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10)]

'공기 밥'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합성어에 매우 가까운 구로 볼 수 있는데, 경음화 선호도가 78%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이시옷이 첨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봄소식'의 경음화 선호도는 37%로 나타났는데, [3]에서는 '봄소식'의 경음화 비율이 50.86%로 보고되어 다소 차이가 났다.

표 7.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7. Tensification preference of hybrid compound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 확률
상다리[따]	73	85	87	90	91	91	87	0.604
성냥갑[깝]	80	76	74	80	84	91	81	0.586
공기 밥	60	61	65	85	88	97	78	0.001*
손전등[쩐]	53	70	74	65	84	94	76	0.019*
우산살[쌀]	47	67	61	65	81	82	70	0.097
물귀신[뀌]	47	61	61	60	84	82	69	0.034*
안경집[찝]	47	52	57	50	69	76	60	0.186
산기슭[끼]	27	67	43	50	88	82	65	0.000*
산비탈[삐]	13	24	22	15	9	24	19	0.581
여름방학[방]	20	52	30	65	72	91	60	0.000*
봄소식[소]	27	52	26	20	53	27	37	0.031*
장바구니[빠]	80	67	78	80	81	91	79	0.301
시장바구니[빠]	33	52	52	60	66	85	61	0.010*
술상[쌍]	60	67	65	80	84	94	77	0.027*
손님상[쌍]	20	48	48	45	63	70	53	0.029*
평균	46	60	56	61	73	78	62	

10) '산기슭'과 '산비탈'의 빈도수는 각각 9:6과 15:18로 두 단어의 빈도수 차이는 없었다.

<표7>의 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기 밥, 손전등, 물귀신, 산기슭, 여름방학, 봄소식, 시장바구니, 술상, 손님상' 등 9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봄소식'에서는 예외적으로 경음화 선호도의 추세적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3.4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표준발음법 제26항에 의하면 한자어에서 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는 경음화 되는데(예: 갈등[갈뜽], 말살[말쌀]),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예: 허허실실[허허실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1]에서 세 음절로 이루어진 복합어들 중에는 /ㄹ/ 뒤의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것들도 있고(예: 고물상, 진열장, 실생활),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으며(예: 특별시, 쟁탈전, 별도리), 두 개의 자립 명사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는 이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예: 개발주의, 가설등기), 예외적으로 '부활주일'의 경우에는 경음화 규칙이 적용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편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8>의 조사 항목들 중에서 '수술대, 수술실, 발달사, 송별식, 영결식, 고별식, 부활주일, 개발주의'는 경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나머지 조사 항목들은 경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발음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3음절 복합어들 중 '송별식, 영결식, 고별식, 발달사, 수술실'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규정된 것처럼 경음화 선호도가 매우 낮았으나 '수술대'의 경우에는 경음화 선호도가 71%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생활상'의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규정과는 달리 경음화 선호도가 43%로 낮게 나타났으며, '불성실'의 경우에도 경음화 선호도가 5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밀수입'과 '기술진'의 경우에도 경음화 선호도가 각각 64%와 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선호도가 낮았다.

4음절 복합어들 중에서 '일사분기'의 경우 83%에 이르는 많은 제보자들이 경음화 된 발음 [일싸분기]를 선호한 반면 '부활주일'은 60%의 제보자들만이 경음화 된 발음 [부활쭈일]을 선호했으며, '개발주의'의 경우 2%의 제보자들만이 경음화 된 발음 [개발쭈의]를 선호했다. '일사분기'와 '부활주일'이 '개발주의'보다 경음화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일사분기'와 '부활주일'이 '개발주의'보다 결합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일사분기'가 '부활주일'보다 경음화 선호도가 높은 것은 '1음절+3음절' 구성의 복합어가 '2음절+2음절' 구성의 복합어보다 결합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1)]

11) '2음절+2음절' 구성의 경우 구성 형태소들의 자립성이 크기 때문에 결합력이 약하다. 장애음 뒤의 경음화도 '2음절+2음절' 구성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예: 대학교수[대학교수]).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경우에는 경음화 선호도가 거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조사 결과 예상과는 달리 '일식집, 절삭기'의 '일식, 절삭'과 '밀실'의 경우 경음화 된 발음 [절싹], [일씩], [밀씰]의 선호도가 62~67%에 지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세 음절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정밀도, 전일제, 오일장, 몰상식'의 경음화 선호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표8>의 조사 항목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밀실, 몰상식, 밀수입, 과실주, 이별주, 고별식, 부활주일' 등 7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별식'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른 경음화 선호도의 추세적 증가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8.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8. Preference of tensification after /l/ in loanword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일식집[씩]	80	67	52	60	66	79	67	0.306
절삭기[싹]	53	55	61	55	72	70	62	0.572
밀실[씰]	40	52	52	65	59	88	62	0.010*
정밀도[또]	40	79	87	85	100	94	85	0.000
전일제[쩨]	47	70	70	70	97	94	78	0.000
오일장[짱]	60	70	70	65	88	79	74	0.278
몰상식[쌍]	47	73	74	60	75	91	73	0.029*
수술대[대]	40	64	57	60	88	91	71	0.001
밀수입[쑤]	47	58	48	55	81	79	64	0.022*
기술진[찐]	47	58	65	55	81	64	63	0.197
불성실[씽]	40	45	39	40	72	76	55	0.005
생활상[쌍]	33	36	22	60	44	58	43	0.059
발달사[사]	33	18	30	15	13	12	19	0.291
수술실[실]	7	12	9	10	6	18	11	0.704
과실주[쭈]	40	61	52	70	75	85	67	0.019*
이별주[쭈]	27	73	52	60	84	79	67	0.001*
송별식[식]	27	39	48	35	47	33	39	0.681
영결식[식]	27	27	39	35	41	39	35	0.819
고별식[식]	13	39	26	15	50	39	34	0.047*
일사분기[싸]	60	73	83	80	97	94	83	0.008
부활주일[주]	20	61	61	55	69	70	60	0.029*
개발주의[주]	13	0	0	0	3	0	2	0.026
평균	38	51	50	50	64	65	53	

3.5 개별 한자음의 경음화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장애음 뒤의 경음화와 /ㄹ/ 뒤의 경음화 외에는 규칙화하기 어렵다. 많은 경우에는 한자음의 개별적인 특성에 의해 경음화가 일어난다. [18]과 [1]에 의하면 한자들 중에는 음절 두음이 단어의 첫 음절에서는 평음으로 발음되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경음으로만 발음되는 것들이 있고 〔예: 대가(**價**)[까], 대권(**權**)[꿘], 입장권(**券**)[꿘], 대기권(**圈**)[꿘]〕, 둘째 음절 이하에서 경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기도 하는 것들도 있다 〔예: 대장간(**間**)[깐]/공간[간], 헌법(**法**)[뻡]/방법[법], 폐병(**病**)[뼝]/질병[병], 한자(**字**)[짜]/주자(**鑄字**)[자], 안내장(**狀**)[짱]/행장(**行狀**)[장], 일기장(**帳**)[짱]/통장[장], 감점(**點**)[쩜]/반점(**半點**)[점], 장조(**調**)[쪼]/강조[조], 실어증(**症**)[쭝]/예증(**例症**)[증]〕. 그리고 한자들 중에는 음절 두음이 위치에 상관없이 경음으로만 발음되는 것들도 있고 〔예: 끽연(**喫煙**)/만끽(**滿喫**), 씨족(**氏族**)/성씨(**姓氏**). 쌍권총(**雙**)/번화무쌍〕, 평음으로만 발음되는 것들도 있다 〔예: 분홍색(**色**)[색], 전국(**國**)[국], 전술(**術**)[술]〕. 이번 조사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 경음화 되기도 하고 경음화 되지 않기도 하는 한자들 중에서 '자(**字**), 증(**症**), 장(**狀**), 장(**帳**), 병(**病**), 조(**調**), 점(**點**), 법(**法**), 방(**房**), 세(**稅**), 적(**的**)'이 들어간 조사 항목들을 선정했고, 위치에 관계없이 평음으로만 발음되는 한자들 중에서 '색(**色**)'이 들어간 조사 항목들을 선정했다.

각 조사 항목 다음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한자의 발음을 『표준국어대사전』을 참고해 적어 놓았다. '3점, 10,000점, 99점, 1,000점'과 같은 구의 경우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點**)'의 발음을 적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신파조'의 발음도 적지 않았다.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경음으로 실현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자들은 경음 선호도가 높고, 평음으로 실현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한자들은 경음 선호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법(**不法**)', '로마자(**字**)', '체증(**滯症**)'의 '법', '자', '증'은 『표준국어대사전』규정과는 달리 경음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관세(**關稅**)'의 '세'도 경음 선호도가 60%나 되었다.

'보온병'의 경우 '병(**甁**)'은 '물병, 술병, 우유병' 등에서와 같이 둘째 음절 이하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1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음 선호도가 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필자는 [1]에서 접미사 '적(**的**)'이 둘째 음절에서는 [쩍]으로 발음되고, 셋째 음절 이하에서는 주로 [적]으로 발음되지만 /ㄹ/ 뒤에서는 [쩍]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물질적인'의 '적(**的**)'이 [쩍]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물질적인'의 '적'의 경음 선호도가 '서민적인, 정신적인, 개인적인, 선천적인, 실용적인, 시간적인, 성공적인'의 '적'의 경음 선호도

12) '술병, 물병'의 경우 '술'과 '물'이 '병'의 용도를 나타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온병, 우유병'은 한자어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론적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음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3점, 10,000점, 99점, 1,000점'의 경우 경음 선호도가 각각 차이가 나긴 했지만 비교적 경음 선호도가 낮았다. '만점(滿點), 영점(零點), 빵점(點)'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면 경음 선호도가 훨씬 높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밤색'과 '분홍색'의 '색(色)'의 경우 예상한 대로 경음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

[3]에서는 '불법'의 경음화 비율이 90.8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의 경음화 선호도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체증(滯症)'의 경우 [3]에서는 경음화 비율이 21.43%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3%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9. 개별 한자음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9. Tensification preference of some Chinese character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로마자[자]	67	70	65	80	94	85	78	0.068
체증(滯症)[증]	60	45	65	85	69	79	67	0.031*
보온병[병]	33	55	43	55	66	88	60	0.002*
안내장[짱]	67	88	83	75	97	85	85	0.102
일기장[짱]	73	79	61	40	78	76	70	0.031*
성인병[뼝]	60	73	74	85	97	94	83	0.006
열병[병]	20	24	35	55	50	67	44	0.003*
신파조	47	64	57	100	84	52	67	0.001*
논조[조]	13	21	35	40	38	27	29	0.368
3점	47	45	48	45	56	48	49	0.962
10000점	47	58	39	25	38	42	42	0.295
99점	13	42	43	45	34	36	37	0.407
1000점	27	21	30	10	22	12	20	0.462
범법[뻡]	60	64	74	95	81	100	80	0.001
설법[뻡]	60	61	74	95	84	91	78	0.006*
불법(不法)[법]	47	67	52	95	81	97	76	0.000*
저작권법[뻡]	73	55	39	80	81	85	69	0.001*
범법자[뻡]	67	42	61	50	81	94	67	0.000*
방법[법]	0	0	0	0	3	3	1	0.725
증여세[쎄]	47	64	74	95	88	94	79	0.000
부가세[쎄]	40	58	74	95	88	94	77	0.000*
관세[세]	13	27	52	75	84	85	60	0.000*
금은방[빵]	67	73	91	70	88	88	81	0.134
단칸방[빵]	60	76	65	70	84	94	78	0.045*
온돌방[빵]	60	64	61	75	88	85	74	0.064
건넌방[방]	20	27	35	40	47	64	41	0.022*
사랑방[방]	20	18	43	45	56	55	41	0.008*
밤색[색]	7	9	0	10	3	3	5	0.561
분홍색[색]	0	6	0	0	0	0	1	0.183
서민적인[적]	33	55	57	25	28	42	41	0.091
정신적인[적]	40	36	30	20	41	61	40	0.068
개인적인[적]	33	36	35	25	34	48	37	0.647
물질적인[쩍]	33	45	39	20	28	39	35	0.456
선천적인[적]	13	30	35	20	31	64	35	0.004*
실용적인[적]	33	36	22	5	22	52	30	0.008*
시간적인[적]	20	27	30	20	16	48	28	0.164
성공적인[적]	7	24	35	5	6	12	15	0.019
평균	39	46	47	51	56	62	50	

<표9>의 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체증, 보온병, 일기장, 열병, 신파조, 설법, 불법, 저작권법, 범법자, 부가세, 관세, 단칸방, 건넌방, 사랑방, 선천적인, 실용적인' 등 16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있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증, 일기장, 신파조, 저작권법, 실용적인' 등의 조사 항목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선호도의 추세적 증가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6 개별 단어의 경음화

기본적으로 경음화는 어두 경음화에 의해 어두에서 일어나거나 경음화 규칙의 작용으로 복합어 둘째 형태소의 어두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경음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음화 현상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개별 한자음의 경음화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별 한자음의 발음과 관련된 현상이고, 다음에 언급할 ㅅ전치 명사와 ㅅ후치 명사들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도 개별 단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개별 단어에서 일어나는 매우 불규칙한 경음화도 있다. 이 절에서는 개별 단어의 경음화 현상을 단일어와 파생어, 고유어 합성어, 한자어 합성어,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나눠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3.6.1 단일어와 파생어

이 조사에서는 15개의 단일어를 개별 단어의 경음화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고, 1개의 파생어(예: 신기다)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단일어 조사 항목들 중에서 '교과서, 고가도로, 교통체증, 공과금'은 합성어이지만 이 조사에서는 '교과, 고가, 체증, 공과' 등의 단일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선호도를 조사하므로 논의의 편의상 단일어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동사의 활용형인 '갈수록'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안쓰럽다'의 둘째 음절은 맞춤법에 경음이 표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안스럽따]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다.

다음의 <표10>에서 보듯이 조사 항목들 중에서 '조건'의 경음화 선호도가 92%로 가장 높았고, '등기'의 경음화 선호도가 33%로 가장 낮았다. '안쓰럽다'의 경우 둘째 음절 두음이 'ㅆ'으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음화 선호도가 69%에 불과했다.

표준발음법 제24항에 의하면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경음화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신기다'의 경음화 선호도가 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발음법 제27항에 의하면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에 이어 나오는 /ㄱ, ㄷ, ㅂ, ㅅ, ㅈ/는 경음화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갈수록'의 경음화 선호도가 83%에 불과했다.

조사 항목들 중에서 '현격한, 효과, 번득이다, 창고, 고가도로, 간단하다, 교과서' 등의 단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경

음화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음화 선호도가 50% 넘게 나타났다. 반면에 '점수'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경음화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음화 선호도가 38%에 불과했다.

표 10. 단순어와 파생어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10. Tensification preference of simple and derivative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조건[껀]	87	73	96	95	100	100	92	0.000
현격한[격]	60	76	74	90	88	91	81	0.080
효과[과]	67	76	78	90	88	82	81	0.466
번득이다[득]	47	64	87	70	84	88	76	0.009*
안쓰럽다[쓰]	60	55	61	60	81	88	69	0.023*
창고[고]	33	64	83	55	72	76	67	0.022*
고가도로[가]	67	73	65	40	72	73	67	0.162
간단하다[단]	20	45	65	55	69	88	61	0.000*
교과서[과]	33	64	39	50	75	79	61	0.004*
창구[구]	13	42	57	50	47	58	47	0.091
공과금[과]	33	27	43	40	47	73	46	0.008*
점수[쑤]	40	61	57	45	16	21	38	0.001*
교통체증[증]	40	42	39	40	38	27	37	0.858
등기[기]	20	33	48	40	28	27	33	0.450
신기다[기]	60	64	57	75	78	79	70	0.328
갈수록	60	76	74	85	91	97	83	0.016
평균	46	58	64	61	67	72	61	

[3]에서는 '효과, 교과서, 간단하다, 등기'의 경음화 비율이 각각 88.68%, 58.29%, 48.29%, 31.7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경음화 선호도가 각각 81%, 61%, 61%, 3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10>의 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번득이다, 안쓰럽다, 창고, 간단하다, 교과서, 공과금, 점수' 등 7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점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경음화 선호도의 추세적 감소가 관찰되었다.

3.6.2 고유어 합성어

개별적인 고유어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17개의 고유어 합성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 달'은 구이지만 이와 구조가 비슷한 '다음날, 다음번'이 합성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편의상 <표11>에 포함시켰다.

조사 항목들 중에서 경음화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음 달'로 84%였고, 가장 낮은 것은 '날다람쥐'로 6%에 불과했다. '다음 달'의 경음화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다음번[뻔], 다음 주[쭈]'와 같이 합성어나 합성어에 가까운 구에서는 '다음'이 뒤에 오는 단어를 경음화 시키는 ㅅ후치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3] '날다람쥐'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발음이 [날따람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사에서는 경음화 선호도가 6%에 불과했다.

표 11. 고유어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11. Tensification preference of native compound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다음 달	60	88	78	75	91	94	84	0.034
눈사람[싸]	67	67	70	85	88	94	79	0.134
좀도둑[또]	47	73	74	80	91	91	79	0.007
김밥[밥]	67	55	70	70	94	97	77	0.000*
콩나물국[꾹]	33	64	70	85	91	94	76	0.000*
손장난[짱]	53	64	65	75	94	76	73	0.031*
비빔밥[빱]	67	55	57	75	84	85	71	0.025*
일삼다[삼]	27	36	43	60	59	76	53	0.006*
새소리[소리]	7	36	43	50	63	48	44	0.014*
불볕더위[볃]	20	42	57	30	44	52	43	0.198
쌈밥[밥]	33	21	35	40	50	42	37	0.264
안간힘[깐]	60	52	35	35	13	6	30	0.000*
돌담길[담]	20	24	35	20	28	36	28	0.701
불사르다[사]	20	21	17	10	34	48	28	0.020*
물장난[장]	20	18	13	5	28	33	21	0.151
이슬비[비]	0	3	0	5	22	21	10	0.007
날다람쥐[따]	7	9	0	10	3	9	6	0.643
평균	36	43	45	48	57	59	49	

<표11>의 조사 항목들 중에서 '눈사람, 콩나물국, 손장난, 김밥, 돌담(길), 물장난'은 첫 형태소가 둘째 형태소의 재료나 도구이므로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눈사람, 콩나물국, 손장난'은 경음화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김밥, 돌담(길), 물장난'은 경음화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사 결과 '눈사람, 콩나물국, 손장난'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규정한 대로 경음화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돌담(길), 물장난'은 경음화 선호도가 낮았다. 그러나 '김밥'은 경음화 선호도가 77%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콩나물국'에서 '국'이 경음화 되는 것은 '된장국, 해장국, 장국' 등 모든 국 이름에 나오는 '국'은 예외 없이 경음화 되는 ㅅ전치명사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14]

13) '다음'이 '시간'이나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합성어인 '다음번'에 사이시옷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달, 다음 주'는 구이지만 합성어에 가까운 구이므로 사이시옷이 첨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세상, 다음 시간' 등과 같이 구의 성격이 더 뚜렷한 구에서는 '다음'이 ㅅ후치명사처럼 기능하지 않는다(3.6.4.절 참조).

14) '냉잇국, 선짓국, 뭇국' 등에서와 같이 첫 형태소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 한글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적고 있다. 이

'손장난'과 '물장난'은 같은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합성어임에도 불구하고 경음화 선호도가 차이가 매우 많이 났다. '새소리'의 경우 선행 형태소 '새'가 유정물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경음화 선호도가 44%로 제법 높게 나타났다. '이슬비'의 경우 경음화 선호도가 1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슬'이 '비'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에서는 '돌담'의 경음화 비율이 62.29%로서 상당히 높게 조사된 것과는 달리, 이번 조사에서 '돌담(길)'의 경음화 선호도가 28%에 불과했는데, 이 차이는 조사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점도 있겠지만 음절 수의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에서는 '날다람쥐'의 경음화 비율이 4.86%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경음화 선호도가 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날따람쥐]로 규정된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였다.

<표11>의 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김밥, 콩나물국, 손장난, 비빔밥, 일삼다, 새소리, 안간힘, 불사르다' 등 8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 중에서 '안간힘'은 예외적으로 경음화 선호도가 추세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3 한자어 합성어

개별적인 한자어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14개의 한자어 합성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영동지방, 방학숙제, 시험과목'은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합성어에 가까운 명사구들이므로 논의의 편의상 <표12>에 포함시켰다.

사이시옷은 한자어 합성어에는 첨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조사 항목들 중 '오후반, 오전반, 사주단자' 등의 경음화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구성 형태소들이 시간이나 용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십년공부'의 경우 시간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경음화 선호도가 46%에 불과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십년공부'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동지방'과 '방학숙제'는 합성어는 아니지만 선행 형태소가 각각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므로 사이시옷이 삽입될 수도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경음화 선호도가 25%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들 중에서 '반창고'의 경음화 선호도는 7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반창고]로 규정되어 있다. [3]에도 '반창고'의 경음화 비율이 73.4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인감도장'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음화 선호도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조사 항목들 중에서 '소비자가격'과 '전전번에'의 경음화 선호도가 '법정가격'과 '전번에'의 경음화 선호도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앞서 언급한 '장바구니'와 '시장바구니', 그리고 '술상'과 '손님상'의 경우와는 달리 빈도수와 음절수로는 경음화 선호도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사돈댁'은 경음화 선호도가 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댁(宅)'이 '안성 댁, 청주 댁'에서와 같이 늘 경음화 되는 ㅅ전치명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15]

표 12. 한자어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12. Tensification of loan compounds(%)

단어 \ 연령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오후반[빤]	73	85	83	90	94	73	83	0.224
사돈댁[댁]	40	73	83	85	91	100	82	0.000
오전반[빤]	67	88	83	75	84	76	80	0.531
전전번에[뻔]	67	85	83	70	66	76	75	0.447
반창고[고]	40	67	70	70	84	85	72	0.036
사주단자[딴]	67	61	61	75	66	76	67	0.737
시험과목	33	39	48	70	69	82	59	0.001*
화장대[대]	20	39	52	55	75	73	56	0.001*
전공과목[과]	27	36	43	60	56	67	50	0.050
전번에[뻔]	47	67	65	50	25	33	47	0.005*
십년공부[공]	33	42	39	50	47	55	46	0.750
소비자가격[가]	13	27	43	45	56	48	41	0.045*
영동지방	27	15	22	25	38	24	25	0.475
방학숙제	7	24	9	20	25	48	25	0.007*
법정가격[가]	27	18	22	20	25	9	19	0.619
인감도장[또]	27	24	13	25	19	12	19	0.054
인감증명[증]	7	24	22	10	0	12	13	0.678
평균	37	48	49	53	54	56	51	

<표12>의 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시험과목, 화장대, 전번에, 소비자가격, 방학숙제' 등 5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 중에서 '전번에'는 경음화 선호도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4 한자어와 고유어로 이루어진 합성어

다음의 <표13>는 한자어+고유어 합성어 2개와 고유어+한자어 합성어 5개, 한자어+외래어 합성어 1개, 그리고 고유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구 1개의 경음화 선호도를 정리한 것이다.

조사 항목들 중에서 '물수건, 발장단, 중병아리'는 『표준국어

단어들에서 첫 형태소는 둘째 형태소의 재료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은 아니지만 '국'이 ㅅ전치명사이기 때문에 맞춤법에 사이시옷을 적는 것으로 보인다.

15) 예외적으로 '새댁'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사전』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 경음화 선호도가 각각 67%, 56%, 52%로 경음화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다음 세상'의 경우 경음화 선호도가 14%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표11>에 나오는 '다음 달'의 경음화 선호도가 84%인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주13>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달, 다음 주'와 같이 합성어에 가까운 구에는 사이시옷이 첨가되지만 '다음 세상, 다음 시간'과 같이 구의 성격이 더 뚜렷할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않아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머리글자'에서 '머리'는 '글자'의 위치를 나타내므로 '머리'와 '글자'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하지만 현행 맞춤법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게 되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머리글자'의 발음이 [머리글짜]로 규정되어 있다.[16] 이번 조사에서 '머리글자'의 경음화 선호도는 4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3. 한자어+고유어 합성어의 경음화 선호도(단위: %)
Table 13. Tensification preference of hybrid compounds(%)

연령 / 단어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평균	유의확률
물수건[쑤]	33	64	65	55	72	88	67	0.007*
발장단[짱]	40	52	57	45	69	61	56	0.392
중병아리[뼝]	53	52	70	45	50	45	52	0.569
머리글자[글]	20	24	48	40	59	73	47	0.000*
양담배[담]	33	55	35	50	50	42	46	0.608
다음 세상	13	12	13	15	16	15	14	0.999
달걀귀신[귀]	7	21	26	5	9	0	12	0.020
말대답[대]	13	6	4	15	0	6	6	0.304
홈집[찝]	53	64	83	80	91	100	81	0.001
평균	29	39	45	39	46	48	42	

<표 13>의 조사 항목들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물수건, 머리글자' 등 2개 항목이 연령대에 따라 경음화 선호도가 의미 있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이상에서 173개 어휘 항목을 가지고 서울 토박이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성별, 세대별로 경음화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표준발음법 제6장의 경음화 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의 개별 단어 발음 규정이 얼마나 현실 발음을 잘 반영하는지 논의했다.

먼저 전체 조사 항목과 어두 경음화 조사 항목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경음화 선호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로는 뚜렷한 경음화 선호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추세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조사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어휘 항목들이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경음화 선호도가 추세적으로 증가했으나, 연령에 따른 경음화 선호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어휘 항목들도 제법 관찰되었으며, 놀랍게도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경음화 선호도가 추세적으로 감소한 어휘 항목들도 일부 관찰되었다.

표준발음법 제6장의 경음화 관련 규정이 얼마나 현실 발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음화 관련 조항들 중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와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를 알아보기 위해 논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음화 환경에 있는 단어들의 경음화 선호도가 80% 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상보다 경음화 선호도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3]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와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가 모든 화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의 경우 자립성이 강한 형태소들이 결합한 복합어의 경우에는 경음화 선호도가 매우 떨어졌는데, 이는 표준발음법 제26항에 붙임 조항으로 언급해 놓거나 해설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표기가 개별 한자음의 경음화, 개별 단어의 경음화, 그리고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관찰해 보았다. 경음화 규정에 예외적인 단어들과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별 단어들의 경음화 여부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의 규정이 현실 발음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발견되었다.

'발뒤꿈치, 물질적인, 점수, 인감도장, 안간힘, 산비탈'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경음화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음화 선호도가 40%도 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수술대, 로마자, 불법, 현격한, 김밥, 효과, 체증, 일기장, 창고, 신기다, 번득이다, 고가도로, 반창고' 등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 경음화 선호도가 60%가 넘었다. 필자는 표제어의 표준발음을 결정할 때 60% 이상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발음은 단일 표준발음으로 인정하고, 경음화 선호도가 40~60% 정도인 단어들의 경우에는 복수 표준발음을 인정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표준발음법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발음 규정이 현실 발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언중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쉽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 표준발음법과 『표준국어대사전』개정 작업을 위해서는 서울말의 발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유연하고 정확한 어문규정과 국어사전으로 수정하게 되길 기대한다.

16) '머리글'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역사가 짧은 '머리방, 빨래방, 노래방' 등의 단어에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1] Lee, H. Y. (1996). *Korean Phonetics*, Seoul: Thaehaksa.
(이호영, (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2] Choi, H. W. (2002). *Pyojun Bareum Siltae Josa*,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최혜원, (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3] Kim, S. C. (2003). *Pyojun Bareum Siltae Josa Ⅱ*,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김선철, (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Ⅱ, 국립국어연구원.)

[4] Kang, E. J., Lee, H. Y., & Kim, J. W. (2004). "The Phonetic Realization of Syllable Codas in Korean", *Malsori*, Vol. 49, The Korean Society of Phonetic Sciences and Speech Technology, pp. 1-30.
(강은지, 이호영, 김주원, (2004). "서울말 어간말 자음의 음성 실현", 말소리, 49권, 대한음성학회, pp. 1-30.)

[5] Kook, K. A., Lee, H. Y. & Kim, J. W. (2005). "A study of n-insertion preferences in Korean", *Malsori*, Vol. 53. The Korean Society of Phonetic Sciences and Speech Technology, pp. 37-60.
(국경아, 이호영, 김주원, "선호도 조사를 통한 ㄴ첨가 현상의 실현 양상 연구", 말소리, 53권, 대한음성학회, pp. 37-60.)

[6] Wells, J. C. (1990). *Longman Pronunciation Dictionary*, Harlow: Longman.

[7] Wells, J. C. (1995). "Age grading in English pronunciation preferences", *Proceedings of the Ⅻ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Stockholm, pp. 696-699.

[8] Wells, J. C. (1999). "British English pronunciation preferences: a changing scen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honetic Association*, Vol. 29, No. 1, pp. 33-50.

[9] Wells, J. C. (2000). *Longman English Pronunciation Dictionary*, 2nd edition, Harlow: Pearson ESL.

[10] Shitara, Y. (1993). "A survey of American pronunciation preferences", *Speech Hearing and Language*, Vol. 7, UCL Phonetics and Linguistics, pp. 201-232.

[11] Im, H. P. (1981). "To resolve the issue of sai-siot", *Gugeohak*, Vol. 10, pp. 1-35.
(임홍빈, (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권, 국어학회, pp. 1-35.)

[12] Oh, J. R., (1988). *Gyeongeumui Gugeosajeok Yeongu*, Seoul: Hanshin Publishing Co.
(오정란, (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13] Ko, K. M. (1992) "The n-epenthesis and sai-sios in Korean", *Eoneohak*, Vol. 14, pp. 31-51.
(고광모, (1992). "ㄴ첨가와 사이시옷에 대한 연구", 언어학 14권, 한국언어학회, pp. 31-51.)

[14] Kim, C. S. (1994). "Word formation and word structure in Korea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창섭, (1994)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 논문.)

[15] Ha, S. K. (2006). "The morphology and phonology of 'sai-sori' phenomena in modern Korean",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하세경, (2006). 현대국어 사잇소리의 형태론과 음운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16] Cho, N. H. (2002). *Hyeondae Gugeo Sayong Bindo Josa*,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조남호, (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원.)

[17] Kim, H. S. (2005). *Hyeondae Gugeo Sayong Bindo Josa 2*,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김한샘,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18] Nam, K. W. (1984). *Hangugeo Bareum Yeongu Ⅰ*, Seoul: Ilchogak.
(남광우, (1984). 한국어의 발음연구 Ⅰ, 일조각.)

• 이호영 **(Lee, Ho-Young)**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Tel: 02-880-6166 Fax: 02-882-2451
Email: hylee@snu.ac.kr
관심분야: 음성학